

※유아도서 「로보베이비」 출판사가 네버랜드로 잘못적었기에 '시공주니어'로 수정합니다.



그림책

	거인에 맞선 소녀, 그레타	조위터커 글, 조이페르시코 그림, 김영선 옮김	토토북
	내가 울 때에	홍순미 글, 그림	봄봄
	로보베이비	데이비드 위즈너 글, 그림, 서남희 옮김	시공주니어
	마음여행	김유강 그림책	오올
	식빵유령	윤지 글, 그림	웅진주니어




“숲이 죽어가고 있어.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어. 거인들이 우리의 집을 다 망가뜨렸어.” 동물들이 겁에 질려 도움을 청한다. 거인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집을 짓고 공장을 만들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들면서 점점 욕심이 커지더니 결국 숲이 사라지고 지구에 이상기온이 나타는 위기를 불러왔다. 어린 소녀가 ‘멈춰!’라는 팻말을 들고 혼자 시위를 계속하자, 한 사람 두 사람 시위에 동참하면서, 거대한 거인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그림책이다.

‘내가 울면 나도 울고 싶잖아’ 한 줄 문장과 담백한 그림. 서툰 위로보다 ‘그래, 마음껏 울어’ 하며 같이 있어 주는 친구.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묻고 그저 함께 있어 주는 친구의 뒷모습이 아름다워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울음 끝에 맑은 미소가 번진다.

로봇 가족에게 새 아기가 배달됐다. 엄마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플랜지’를 조립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설명서대로 하지 않고 삼촌 맘대로 아이디어를 더해 만든 로봇은 시동을 걸자마자 좌충우돌 도망가다 부서져 버린다. 온 가족이 아기 로봇에 대한 기대감과 조립하며 생기는 엉뚱한 소동을 만화의 개성과 특징을 접목시켜 재미있게 그려낸 책이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생활에 함께할 미래 세상을 한껏 상상해보도록 자극한다.

어느 날 ‘마음’을 잃어버린 아이의 뒷모습.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어져 그저 쓸쓸히 누워있던 아이는 별떡 일어나 마음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미끄덩한 뱀과 무서운 사자도 만나고 끝없는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마음언덕에 도착했다. 드디어 떨어져 나간 내 마음을 찾았건만 작아져 맞지 않는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자리를 키워 보겠다는 아이의 긍정성이 돋보이고, 현명한 마음요정의 도움으로 몸이 자라듯 마음자리도 쑥쑥 자란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인이 돌아간 뒤 제과점, 식빵 속에서 바스락거리며 작은 유령이 깨어난다. 식빵유령은 식탁을 빙빙 돌며 어제와 달라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청소하며 일과를 시작한다. 그러면 길고양이가 들어와 남은 빵을 먹어치우고, 발바닥을 빨고, 이곳저곳에 발자국을 남기고 떠나 버린다. 귀찮게 굴긴 하지만 쥐를 물리쳐준 적도 있는 고양이가 며칠째 보이지 않아 궁금해 하던 차 유령이 되어 나타난다. 부푼 식빵 속에 작은 유령이 살고 있으리라는 기발한 상상과 길고양이의 특성이 재미있게 녹여진 그림이 재미있다.

	미장이	이명환 글, 그림	한솔 수북
	알록달록 색깔공장	에릭텔친 글, 디에고 핑크 그림, 루이제 옮김	에듀엔테크
	이 뼈를 모두 누가 찾았게? 최초의 고생물학자 메리에닝	린다 스키어스 글, 마르타 미겐스 그림, 길상호 옮김	씨드북
	오늘도 기다립니다	정혜경 지음	한울림 어린이
	천해개의 별, 단 하나의 나	세스 피시만 글, 이저벨 그린버그 그림, 최순희 옮김	다섯수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일 나가시고,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다 불쑥 가족이 먹을 ‘조기’를 사들고 오시는 아빠. 그렇게 안 계신 날들도 엄마와 함께 학교를 다니며, 건물 벽을 장식하고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아빠의 작품을 보며 아이들은 자란다. 아들은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는 건물 벽을 장식하는 모습으로 ‘미장이’라는 직업과 연결해 가족의 의미를 따뜻하게 그렸다.



초콜릿으로 초콜릿색을 만들듯이 세상 모든 물건의 색을 만들어 낸다고 자랑하는 색깔공장을 견학한다. 공장 사람들은 색깔 안내서에 따라 완벽한 색깔 만드는 법을 보여주려는데, 막대사탕 색이 이상하다. 잘못 만들어진 색깔을 없애려고 색을 지워 봐도 소용이 없다. 할 수 없이 공장 전원을 꺼버리자, 생각지도 못한 색이 나타났다. 분명 색깔 안내서에 나오는 색은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는 색, 반짝이는 색을 무슨 색이라고 부를까? 어린이들에게 색의 조합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형광색’을 설명해 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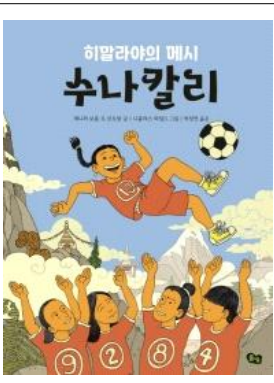
해변가 바위틈 에서 커다란 눈구멍이 자기를 쳐다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메리는 오빠와 함께 그 눈구멍이 있는 머리뼈를 파내서 팔았고, 그 뼈를 연구한 과학자들은 메리가 찾아낸 것이 현재의 ‘공룡’의 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메리가 발견해 낸 뼈와 톱으로 지구에는 사람이 살기 수백만 년 전부터 생명체가 살았고, 때로 멸종했으며, 당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밝혀낼 수 있었다. 그 당시엔 여자는 대학입학도 과학자로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 메리의 지칠 줄 모르는 탐험과 열정으로 발견해 낸 뼈들 덕택에 고생물학이란 학문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쪽은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먹는 아이의 일상이 다른 쪽은 빈 식탁에서 아내의 잔소리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일상이 대비되어 보인다. 아이의 시간은 빠르고 할아버지의 시간은 더디게 가다가, 주말이 돼야 둘은 만난다. 무슨 짓을 해도 예쁜 손녀의 에너지와 할아버지의 에너지는 자꾸 어긋나지만, 빠진 손녀에게 뽑기 인형을 안겨주며 행복을 느낀다. 밤이 되어 아들 등에 업혀가는 손녀와 혼자 잠들어야 하는 할아버지, ‘나는 기다리는 걸 잘 하거든요.’라는 말이 무겁게 와 닿는다. 독거노인이란 무거운 주제를 손녀 밝음과 경쾌한 색으로 대비시켜 조부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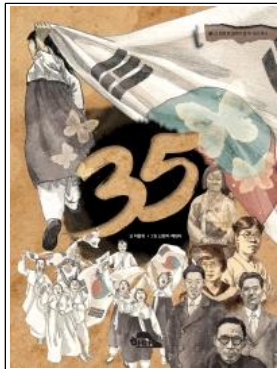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별 들 중 하나가 태양이고, 그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많은 별들 중 푸른 행성이 지구다. 우주에서 볼 때는 푸른빛을 띤 작은 별, 지구에 사는 수억 명 중에 한 사람인 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경 마리 개미의 무게가 지구에 사는 75억 명 사람들의 무게와 거의 비슷하고, 365일을 31,536,000초로 대치해 소개하는 등 평소애 잘 쓰지 않는, ‘경’과 ‘해’ 등의 숫자 읽기와 표기 방법을 알려 준다. 지구 위에 사는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있는 ‘나’는 저 먼 우주를 건너, 지구상에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다.

초등 1~2학년

	건축가 이기 펍의 엉뚱한 상상	안드레아 비티 글, 데이비드 로버츠 그림, 김혜진 옮김	천개의 바람
	기다려, 오백원!	우성희 글, 노은주 그림	단비어린이
	로켓보이	케이트 제닝스 글, 조이 릴링턴 그림, 박원영 옮김	찰리북
	루브 골드버그처럼	사라애런슨 글, 로버트 뉴베커 그림, 양진희 옮김	함께자람
	시골은 시골로 남겨둬야 해 -자연을 그리고 가꾸고 지켜낸 베아트릭스 포터	린다 에볼비츠 마셜 글, 일라리아 우르비나티 그림, 길상효 옮김	씨드북

	얼룩진 아이	다니엘 루샤르 글, 아델라 레슈나 그림, 박영진 옮김	마주별
	오염물이 터졌다!	송수혜 글, 그림	미세기
	조립왕 장렬이	유진 글, 그림	한림출판사
	하민이의 그림 그리고 싶은 날	김하민 글, 그림	주니어김영사
	히말라야의 메시 수나칼리	제니퍼보롬-르모르방 글, 니콜라 월드 그림, 박정연 옮김	풀빛

초등 3~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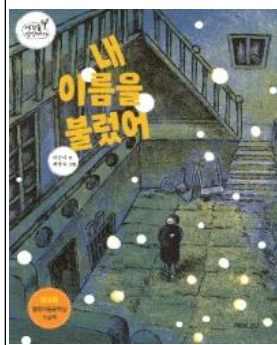
35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나라 역사

이윤희 글, 심보미, 배정식 그림

하마

5천년 긴 우리 역사에서 볼 때 35년 식민시대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나라 역사'라는 부제처럼 임진왜란 전후부터 일본은 끊임없이 침략의 손길을 뻗쳐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300년 후, 1875년 '운요호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는 징후는 곳곳에서 보였지만, 위정자들의 부패와 대외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됐다. 하지만 백성들은 치욕의 시간을 견디며 독립운동을 했고, 결국 새 나라를 세웠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역사를 종횡으로 살펴, 다시는 국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내 이름을 불렀어

이금이 글, 최명숙 그림

해와 나무

다친 할머니와 힘겹게 살아가는 동준은 가난한 게 티 날 것 같아 '방학교실'에 가기 싫다. 또 혜나의 관심이 대학생 선생님에게 향한 것을 알고 축구할 때나 눈썰매 탈 때 선생님에게 억지를 부린다. 하지만 선생님은 몸을 부딪치고, 축구에 관심을 보이며 동준 이를 다독인다. 집으로 오는 길 그 선생님이 바로 동준이가 사는 다세대 주택 옥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환경 탓에 위축되고 어깨를 펴지 못하는 아이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지 잔잔하게 보여준다.



편의점

이영아 글, 이소영 그림

고래뱃속

거의 매일 편의점 주변을 서성이며,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빠르게 먹는 아이가 눈에 띈다. 창문으로 우연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범수도 편한 일상은 아니다. 큐브에 빠졌던 아이가 어느 손님이 남긴 담배꽂이가 들어간 컵라면에 손을 대려는 순간 범수는 테이블을 건너차 못 먹게 한다. 할머니의 입원으로 병원 주변을 떠도는 아이와 술 마시고 욕을 해대는 아빠에게 맞으며 힘든 생활을 하는 범수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기 상황을 돕는다.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들이 편의점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서로의 상황을 알아보고 서로를 구한다.



로켓이야기

박열음 글, 홍민기 그림

봄나무

로켓의 기원이 중국의 '폭죽'이라고 한다. 이처럼 작은 시작에서 로켓과 미사일, 인공위성을 쏘는 일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썼다. 헛갈리기 쉬운 로켓과 미사일의 다른 점, 왜 강대국들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지, 과학 연구의 집결체인 '로켓'이 미래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갈지 등 로켓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 어쩔 수 없이 미사일 설명에서 군사무기에 대한 설명이 다뤄지지만, 그 과정이 과학기술의 집결체인 '우주로켓' 개발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바이러스에도 안전해요

박신식 글, 젤리이모 그림

소담주니어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보니 서로의 말이 푹푹하게 들리지 않거나, 불편한 숨쉬기, 친구와 떨어져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 등 생각지도 못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다. 이 책은 깔끔 바이러스, 마스크 바이러스, 스트레스 바이러스, 떨어져 바이러스 등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상황에 전염병 예방과 손 씻기, 마스크 쓰기의 장단점, 친구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면역력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어린이의 일상 이야기로 재미있게 설명해 준다.

	세균과 바이러스	김희정 글, 이창우 그림	지학사아르볼
	세상을 바꾼 작은 영웅들	스텔라 콜드웰 지음, 김정한 옮김	놀이터
	와이파이 기술을 발명한 영화배우 헤디 라마	로리 월마크 글, 케이티 우 그림, 김종원 옮김	두레 아이들
	꿀벌소년	토니 드 솔스 지음, 이재원 옮김	샘터
	카이와 그레타	주타 님피우스 지음, 바바라 욘 그림, 최성욱 옮김	한울림스페셜

세균 삼총사 동글이, 길쭉이, 꼬불이와 곰팡이 친구들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역사부터 진화과정, 지구의 생명체들은 미생물에 포위돼서 살아간다는 것을 만화와 적절한 사진으로 소개해 준다. 세균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들어와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균으로 활동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병의 치료제로, 예방을 위한 백신을 개발해가며 세균을 극복하고 있다. 세균, 바이러스에 관한 지식을 철저히 알아가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철저한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적 위생을 지키는 것이 전염병을 막는 큰 역할을 한다는 새삼 강조하고 싶다.

네 살의 알렉산드라 스콧은 소아암에 걸린 다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레모네이드 판매대를 설치해 소아암 환자를 위한 돈을 모았다. 아홉 살 펠릭스 핑크바이너가 지구에 도움을 주고자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을 시작으로 140억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고, 열여섯 살의 소니타 알리자데는 아동들의 결혼에 항의하고자 랩을 만들어 불렀다. 이렇게 작은 생각과 행동이 파장을 일으켜 부당한 것에 맞서며 세상을 바꿔간다. 평범한 아이들에게 감춰져 있는 용기와 열정을 이끌어낼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내가 얼굴이 예뻐서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운 여배우로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헤디 라마는 전자부터 인쇄기 같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과학 기술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발명하길 즐기는 사람 이었다. 하지만 ‘여배우’라는 편견에 가려 현대 문명에 변화를 이끌어낸 ‘주파수 도약(와이파이)’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란 사실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좋은 일을 해라. 어찌됐든 크게 생각해라. 어찌됐든 만들어봐라.” 라는 그녀의 말을 전하고 싶다.

50층 아파트 옥상에서 꿀벌을 키우게 된 멜빈은 벌이 되어 벌통에 들어가 본다. 여왕벌을 돕는 일벌을 비롯해 각자의 역할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꿀벌 사회에서는 환영 받았지만, 꿀벌 키우기에 대한 발표로 놀림 당한다. 한편 아파트 주민들은 벌이 사람을 쏜다며 항의하자 엄마는 ‘주민 회의’를 개최한다. 위기에 빠진 멜빈을 구해주는 프리티의 도움으로 다시 벌들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지구에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 생명체에 큰 위기가 닥치는데, 꽃이 수정되지 않아서 씨앗을 맺지 못하고, 과일을 먹지 못하고, 결국 동식물이 생존 위험에 빠진다는 점을 ‘벌 키우기’란 소재로 풀어내 재미와 지식 둘 다 얻을 수 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카이의 행동이 이상하다. 엄마의 손짓에 따라 살금살금 사다리를 통해 올라간다. 옆집에 춤추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애가 이사를 오고, 선생님은 그 아이를 돌보라고 한다. 한편으론 싫지만 그레타의 천진함에 마음이 쓰여, 괴롭히자는 친구의 제안을 못들은 척 한다. 알콜 중독자 아빠의 성냄과 폭력이 담을 넘는 순간 초인종을 울려대는 그레타,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조용히 하세요!’라고 외치는 별난 아이와 우정은 그렇게 시작된다. 발달장애라는 특질일 수도 있는 어눌한 행동, 단순한 말, 따뜻한 마음이 카이를 위기에서 구하고 뼈뼋하게 굳어가는 마음을 녹인다.

초등 5~6학년

	<p>나라에 일이 생기면 누가 해결하지?</p>	<p>서지원 글, 이주윤그림</p>	<p>마음이음</p>
	<p>널 잊지 않을 게</p>	<p>A.F.해럴드 글, 에밀리 그레빗 그림, 서현정 옮김</p>	<p>가람어린이</p>
	<p>만화 보다 재미있는 민화 이야기</p>	<p>정병모, 전희정 글, 조에스터 그림</p>	<p>스폰북</p>
	<p>문화재를 지킨 사람들 -잊힌 역사의 조각들을 되찾다</p>	<p>안민영 글, 허지영 그림</p>	<p>책과함께 어린이</p>
	<p>블랙 걸 -역사의 뒷안길에 숨어야했던 클로 넷 콜빈</p>	<p>에밀리 플라토 글,그림, 이희정 옮김</p>	<p>밝은 미래</p>

매일 뉴스에서 코로나19상황에 대한 보고와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도 정부의 행정기관 중에 하나다. 미세먼지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환경부,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보건 복지 부등 행정부는 전문성을 띤 18개부와 18개청이 있다. 태풍과 지진, 북핵문제 등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계 부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다. 완두와 현지는 주변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통해 정부 기관의 종류와 하는 일에 대해 알아 가는데, 만화와 유용한 정보를 담아 쉽게 설명하고 있어 행정부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디셈버에게 가족은 아빠뿐이다. 해피네스는 학교에서 짝이고 어떤 일도 같이 하며, 깔깔 웃을 수 있는 단짝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갑자기 죽었다. 외삼촌은 디셈버를 일반 사람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면의 세상으로 데리고 가, 삼촌의 죽은 개와 바꿔 버렸다. 죽은 사람이 잠시 머무는 곳 '회색마을'에는 해피네스가 있고, 죽은 지 수십 년 된 엄마가 있고, 양쪽 세계를 넘나드는 고양이 가 있었다. 그곳에 다시 간 디셈버를 엄마는 품안에 가두고 말한다.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고. 과연 디셈버는 엄마를 뿌리치고 친구를 데리고 '회색마을'에서 이쪽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가까운 가족 혹은 친구를 잃은 이들에게 환상세계에서나마 작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민화'란 서민이 그린 그림으로 우리민족의 감성을 잘 드러낸다. 잡귀를 물리치는 까치 호랑이 그림, 신화와 상상의 주인공 용그림, 어진 임금의 그림 봉황도 등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다양한 예술 감각이 담긴 민화와 풍속화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다. 삼국지에도 동우란 사람이 공부 잘하는 비법을 문자 세 가지 여유가 있으면 된다는 그림이 '삼여도'란다. 특히 그림 같은 글씨, 글씨 같은 그림은 현대사회 디자인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무엇보다 민화는 보는 이의 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전해져 정겹다.

구텐베르크의 '세계최초금속활자'라는 역사를 바꿔버린 자료가 「직지 심체 요절」이다. 이 역사는 박 병선이 프랑스로입도서관 별관 창고에서 낡은 책 한권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자로 쓰여 있어 중국 책으로 분류되었던 책을 알아보고, 금속활자라는 것을 증명해 2001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 되었지만 우리나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 문화재는 원래의 자리에 있을 때 의미와 맥락이 정확히 전달되는데, 전쟁, 불법약탈, 도굴, 판매 등으로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문화재를 찾아내고 온갖 방법으로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같은 버스에서 흑인이 앉는 자리와 백인이 앉는 자리가 나뉘어져 있고, 특히 흑인은 절대 백인 좌석에 앉을 수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 정당한 요금을 냈는데도 앉아 있는 자리를 백인에게 양보하라면서 때리고, 결국 감옥에 보냈다. 클로넷은 항소했지만 실패했고, 그 일은 잊히는가 했다. 하지만 똑 같은 일이 로자 파크스에게도 일어났다. 그 때부터 흑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381 일째 '버스승차 거부운동'을 이어나간 결과 흑백 분리 좌석 제를 없애는 길을 열었다.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지역의 법이 바뀌게 되었지만 처음 문제에 항의한 클로넷은 역사의 뒷안길에 숨겨졌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새삼 생각난다.

	상식을 뒤집어 과학하기	장순근 글, 박준우 그림	리잼
	아무 질문이나 괜찮아, 답은 항상 찾을 수 있어	누리 비타치글, 스텝 청 그림, 이정희 역	니케주니어
	완벽한 세계에 입장하시겠습니까?	박현숙 글, 이소영그림	살림어린이
	[만화] 웬델	브레나 섬러 글, 그림, 임윤정 옮김	밝은미래
	트럼펫을 부는 백조	엘윈 브룩스화이트글, 프레드 마르 셀리노 그림, 김태훈 옮김	산수야

자연 현상과 인간 사회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보편적인 법칙 및 원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과학인데, 이 책은 ‘~~가 없다면’이란 가정으로 시작해 그 없음으로 나타날 세상을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한다. 산소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미생물이 없다면, 동물이 없다면, 전쟁이 없었다면과 같이 상식을 뒤집는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조화로운 환경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점심시간 학교도서관 챌린지, 주제는 ‘세상 모든 것의 처음’이다. 최초의 화장실 누가 만들었나? 우리 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등 50개의 질문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서 60분 동안 답을 찾아내는 과정을 정리한 책이다. 연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을 책과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고 해결하는 과정을 즐기면 그게 진정한 연구자다. 코로나19상황에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도서관’과 ‘주제’를 정해서 궁금증을 찾아내는 도전이 널리 퍼져갔으면 한다.

엄마는 웹툰 작가, 밤늦게 까지 작업하다가 깨워주지 않아서 맨날 지각하게 만들고, 꼬질 한 실내화를 신게 하는 방임형 엄마다. 어느 날 엄마가 그리다 만 ‘저승사자의 꿈’이라는 웹툰 세계에서 주인공 환희도령을 만나 ‘완벽한 아이’가 되는 거래를 한다. 달진이가 완벽해 질수록, 엄마의 피와 땀과 세월이 지불 되고 있다는 것과 우등생을 만들어내는 학원이 거대한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연 달진이는 늙어가는 엄마의 시간을 멈추고 거래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흡입력 있는 스토리 전개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된다.

마조리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아빠와 동생을 돌보며 세탁소를 운영하며 학교에 다녀야 한다. 늘 헉헉대는 생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집안을 이끌어가는 마조리에게 집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이상한 아저씨까지 등장한다. 그는 세제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웃들의 불만을 키워 마조리가 포기하도록 작당한다. 한편 세탁실을 어지럽히는 범인이 할로윈 분장을 한 줄 알았는데, 11살에 죽은 아이 웬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유령이라도 엄마를 만나고 싶은 마조리, 유령 법을 어겨서라도 마조리를 도와주고 싶은 웬델의 이야기가 사랑스럽고 슬프고 웃긴 그래픽 노블이다.

숲이 우거지고 잔잔한 호수를 따라 등자를 짓고 새끼를 낳는 트럼펫 백조 부부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루이가 있다. 어린 루이는 샘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녀 읽고 쓰기를 배워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만 백조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 고백, “뽀-옴!”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이다. 아빠백조는 아들을 위해 트럼펫을 훔쳐 준다.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어 맛있는 물풀로 식사하면 그만인 백조가 인간의 글을 배우고, 트럼펫을 연주하며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사랑을 얻기 위해서인데 정작 세레나와 루이는 동물원에 잡히는 신세가 돼 버린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백조의 일생이 인간 사회와 대비되며 큰 감동을 준다.